

Harold Bloom, *The American Religion : The Emergence of the Post-Christian Nation.*  
New York : Simon & Shuster, 1992, 288p.

### 조 혜 인

미국의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특성은 무엇인가? 그 특성은 전반적으로 미국적 모습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가? 그것은 미국의 종교들을 그 뿐만이 되는 유럽의 종교들로부터 구별시켜 주는가? 세속화 대 종교부활의 논쟁에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미국의 종교연구가들은 틈틈이 이문제에 관심을 가져 왔다. 벨라(Robert Bellah)의 공민종교(civil religion)론도 결국은 같은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다. 미국인들이 개신교, 천주교, 유태교 등 개인이 속한 교파를 초월하여 보편적 신, 선민적 사명감 등과 같은 기성종교의 인식론적 특성을 고스란히 계승한 어떤 공통의 종교속에서 자신들의 자유 민주주의적 국체를 함께 신봉하고 있다는 그의 논의는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벨라 자신은 이후 미국인들이 그가 공민종교에 결부시킨 공동체적 사명감에서 점점 이탈하여 개인적 탐닉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개탄하게 되었다. 최근에 그를 포함한 일단의 미국인들이 공동체 정신의 회복을 지향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얼마전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여호와 원경(The Book of J)』을 비롯한 다수의 종교관계 연구서를 내놓은 예일 대학교의 문학 평론가 블룸이 미국 종교의 성격규정을 시도하고 있는 글이다. 블룸은 벨라의 문제의식을 뒤집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는 개인에의 탐닉이 미국 종교가 일탈해온 상태가 아니라 바로 미국 종교 본래의 모습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은 개탄해야할 현상이 아니라 미국적인 것의 정수로서 직시하여야 할 현상이라고 말한다.

이렇듯 직시하여야 할 현상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종교사회학, 종교심리학, 종교사학 등 종교를 연구해온 주된 학문들이 지니고 있는 반 개인적 편향이라고 블룸은 본다. 그리하여 그는 미국적 종교의 진면모를 편향없이 보기위하여 종교연구의 새로운 분야로서 엄격히 인문주의적인 종교 비평(religious criticism)의 전통을 수립하려 한다. 그는 이책에서 모르몬교(Mormons), 기독과학(Christian Science), 안식일재림파(Seventh-day Adventism),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 순복음교(Pentecostals), 남부 침례교(Southern Baptists) 등 미국에서 태어난 기독교적 교파들을 장별로 살펴보면서, 종교 비평의 방법으로 그 공통의 특징을 도출해 보고 있다.

블룸에 의하면 이 모든 사례들이 공통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아에 대한 천착이다. 그것은 피조물이 아닌 자아, 천지창조 이전부터 존재하는 자아를 찾는 순례이다. 그 자아는 구체적으로, 피조물로서의 마음(psyche) 속에 숨어 있으면서 스스로 존재하는 영혼(pneuma)을 가리킨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신 바로 그 자체다. 기독과학의 창시자 매리 에디(Mary Eddy)가 병의 원천으로서의 “인간 마음”(mortal mind)과 구별되

는, 치유의 원리로서의 “신 마음”(divine Mind)을 말할 때, 그리고 예수가 그러한 마음의 과학자라고 말할 때, 그녀는 자신의 정신적 순례의 역정을 신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르몬교의 창시자 조셉 스미드(Joseph Smith)가 신은 인간으로 출발하여 영웅적으로 신의 지위를 성취해 간 것이라고 말할 때 그는 자신의 역정을 그러한 신의 모습속에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아의 신격화는 남부침례교에까지 이어진다. 남부침례교의 “영혼자격”(soul competency) 개념은 신과 매개없이 교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지만, 여기서 매개없이라는 말은 실은 자아 속에 있는 내면적 빛(inner light)의 매개를 통해 신과 합일한다는 뜻이라고 볼륨은 본다.

블룸은 이것이 고대 기독교의 한 유파로서 유럽에서는 사라진 영지주의(Gnosticism)의 모습이라고 말한다. 이들 미국의 종교는 신에 대한 믿음이 아닌 신에 대한 앎을 지향한다. 자신을 초월하는 신에 복종함으로써가 아니라 바로 자신 속에 있는 신을 앎으로써 그와 영원히 결합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앎은 주지적인 앎이 아니라 오히려 반주지적인 앎이다. 조금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당의 황홀경(ecstasy)을 동반하는 열광적이고 신비적인 앎이다. 이점에서 그것은 열광적 신비주의(Orphism)이기도 하다.

블룸은 일반적으로 미국 종교가 초기부터 유럽에서와는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한채 발전하였다고 주장한다. 같은 신도집단안에서도 타인이나 공동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게만 열광적으로 몰입하는 것은 유럽에서는 개신교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의 고전적 기독교를 기준으로 한다면 미국의 기독교는 정확히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 이후의 종교이다. 미국의 기독교가 유럽의 기독교와 다른 모습을 하나 구체적으로 보면 원시교회 – 오순절 교회 – 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부활한 후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체류하던 때의 예수에 대한 집착인 것이다. 이것은 예컨대 순복음교 – 즉 오순절교 Pentecostals – 뿐 아니라 모르몬교도 마찬가지이다. 예수가 아메리카대륙에 나타났다는 것이 바로 그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들 신흥종교들을 사교로 백안시하는 근본주의교파인 남부 침례교 Southern Baptists 에 대해서도 같이 해당되는 사실이다. 이렇듯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던 때의 예수에 집착하는 것은 신과 홀로 합일하려는 미국기독교의 영지주의적 태도의 발로인 것이다.

지상에서 예수와 영원히 같이 있으려는 미국 종교들은 예수 재림후 건설될 천년왕국에 사로잡혀 있다. 종말론에 몰두하는 모습은 “말일성도”로서의 모르몬교로부터, 구원될 자의 수를 세는 여호와의 증인, 재림을 주된 근본주의 원리로 강조하는 남부침례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미국 종교들에 공통된 점이다. 물론 지상왕국에서의 현세적 복지를 지향하는 자세는 기독교를 거의 건강의 동의어로 사용하는 기독과학이 무엇보다도 잘 보여준다. 그러나 미국 기독교는 신이 승천한 후 다시 재림하여 신의 왕국을 건설한다고 믿기 보다는 신이 계속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지상 왕국을 가져다 준다는 태도를 취한다. 말하자면 미국인들은 예수와 함께 죽음을 극복해 낸 것이다. 블룸의 이러한 분석은 미국이 선택된 나라라는 공민종교적 함의에 다가가는 것이 된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그 선민주의를 정치적인 공동체로서가 아닌 종교적인 개인으로서 갖는다는 것이 블룸의 취지이다.

블룸은 그가 이 책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한 “미국산” 교파들이 보여 주는 특성은 주류 교파(mainline denominations)를 포함한 일반적인 미국 종교가 지니고 있는 특성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교파들은 이를 좀더 극단적으로 보여줄 뿐, 개신교 천주교 유태교등 미국의 종교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블룸은 미국에서 “개인주의”가 합리적인 세속적 이념으로서만이 아니라 열정적이고 신비적인 모습으로도 존재하며 실은 그것이 미국적 정신의 좀더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시사를 던진다. 블룸은 예컨대 우드스탁 록 페스티벌(Woodstock Rock Festival)에서 모인 “외로운 군중”인 개인들이 나타낸 열광은 미국 종교의 열광성과 아주 같은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켄터키주 케인 리지(Cane Ridge)라는 시골마을에서 백오십년도 더 전인 1801년에 미국적 종교인들의 열광적 대 부흥회가 열려 그러한 미국적 장면의 선구적인 사례가 되었다는 것이다.

블룸의 연구는 미국적 종교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중요한 측면을 보고 있다. 신비적 경험을 그 자체로 다루는 작업이 종교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에서는 소홀하게 되어왔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열정성이 미국인의 주된 속성이라는 주장은 반론의 여지가 있다. 오히려 평균적 미국인은 평균적 유럽인에 비해, 아마도 어느정도는 그 영국적 뿌리때문에, 상당히 “차분”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어느쪽이든 극단을 싫어하고 중도를 가장 선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들이 때때로 열광적인 것은 어쩌면 그러한 “차분함”에 대한 의식적 무의식적 카타르시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이 차분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카타르시스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객이지 주가 아닌 것이다.

블룸이 종교를 사회로 환원시키는 뒤르케임적 관점에 반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사회과학적 환원론에 반발하여 문학적 종교연구로서의 종교비평이라는 장르를 새롭게 열려는 그의 시도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블룸이 사회과학에 대한 이유있는 반감을 종교현상의 배후에 있는 사회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문제라고 하겠다. 열정성에서만큼 역설적인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대위적 관계가 사회와 개인사이에는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개신교적 전통이 오로지 개인주의적 지향만 지니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동시에 공동체적 지향도 상당한 정도 지니고 있었다. 미국의 개인주의는 공동체를 전제로한 개인주의이지 결코 독아론적 개인주의가 아닌 것이다. 어쩌면 바로 그렇게 공동체에 관념적으로 묶여서 지탱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개인주의가 완고할 수 있는 것인데 블룸의 반공동체적 편향은 미국인의 공동체적 지향을 실제 존재하는만큼 포착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인과적 판단까지를 놓치게 만드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미국의 개인주의가 종교에서도 작용하는 강도와 심도, 그리고 열광적일 수 있는 측면까지를 잘 보여준 것은 이 책의 부정할 수 없는 공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조혜인,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주소 : (121-110)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1  
Tel : 705-8370(O), 326-3665(H)